20개국 에너지산업 '큰 손' 내달 광주에 온다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
SWEET 2016
Solar, Wind & Earth Energy Trade Fair

3월 16일~18일 개최

한전 등 국내외 200개사 참가

에너지밸리 조성·판로 개척 기회

지난해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던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 'SWEET 2015'. 〈광주일보 자료사진〉

국제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SWEET 2016'이 오는 3월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오는 3월16일부터 18일까지 SWEET(Solar, Wind & Earth Energy Trade Fair) 2016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1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주최하고 KOTRA, 한국풍력산업협회, 에너지관리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가 공동주관한다. 전 세계 20개국 200개사, 20개국 바이어가 참가한다.

'SWEET 2016'에서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저장 등 신재생에너지 전 분야와 스마트그리드, ESS 등 에너지효율 분야의 국내외 우수 기업의 신기술과 제품이 전시된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사업화 촉진, 정보 제공, 판로 개척의 장도 마련된다.

부대행사로는 신재생 에너지산업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도 진행된다. 개발도상국 국책 전력산업 책임자를 비롯한 에너지산업의 '큰 손들'을 대거 초청해 20개국 100명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행사다.

이 행사에는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한전,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도 대거 참여한다.

이번 전시가 광주지역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국제 메카로 국내 선도도시로서의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한전과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빛가람혁신도시 이전에 맞춰 추진 중인 에너지밸리 조성과 지역의 에너지 신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은 일자리창출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주목받으면서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에너지밸리 조성의 주체인 혁신도시 이전 에너지 공기업과 광주시, 전남도, 관련 업체가 상생 협력하는 전시회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 남도관광 대표 브랜드명 공모

광주시가 오는 29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남도문화관광 브랜드 네이밍'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 확장 개통, KTX 호남선 개통 등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문화관광 마케팅을 펼치고 매력적인 문화예술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광주의 문화관광 내용을 함축하면서도 전문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 네이밍을 접수한다.

신청서식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전자우편 tour-idea@naver.com) 또는 시 문화도시정책관실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하면 된다.

응모 자격은 제한이 없이 국민과 외국인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1인당 2건 이내로 출품할 수 있다.

응모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 상징성, 상품성 등을 종합 평가해 광주광역시장 등 주최 기관장 표창과 함께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2명 각 100만원, 장려상 3명 각 50만원 등 총 26개 작품에 75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하고, 수상작은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모든 응모작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타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이거나 표절 시비가 발생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고, 입상 발표 후에 확인될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김인천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 양림동 등 광주의 매력 거점을 홍보해 예향·의향·미향의 고장 광주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문화관광 수요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복지재단, 온라인 시민활동가 모집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이 온라인 복지자료 공유방 '복지곳간'에서 활약할 역량 있는 시민참여활동가를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복지곳간이란 복지현장에 흩어져 있는 유·무형의 복지자원 중 사람과 지식 분야의 복지자료들이 인터넷상에서 실시간 공유되는 온라인 정거장이다.

재단은 앞으로 복지곳간을 통해 사회복지기관과의 협업을 지속 추진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물론 광주시민이 함께 광범위한 복지 관련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전파할 수 있도록 지역 공유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복지곳간 운영주체인 시민참여활동가 모집대상은 지식나눔활동가와 곳간지기활동가이다. 지식나눔활동가는 사회복지 및 그 외 분야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의 경험·노하우에 대한 각종 칼럼 작성과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온라인 피드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곳간지기 활동가는 55세 이상, 순수자원봉사를 통한 재능 나눔 활동 참여자로서 사회복지기관 홈페이지 검색을 통한 '복지곳간' 해당 콘텐츠 자료 취합 및 등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광주시 (www.gwangju.go.kr), 재단(www.gjwf.kr) 및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gie.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광주복지재단 팩스(603-8377) 혹은 이메일(pides79@nate.com)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곳간은 오는 3월 말 정식 운영을 시작 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

시민 모니터단 200명

대중교통 불편 실시간 제보

광주시는 이달부터 광주지역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서비스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모니터단의 제보를 실시간 확인해 처리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적극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모니터단과 실시간 소통하고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모바일 커뮤니티(밴드) '빛고을 빵빵서비스'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빛고을 빵빵서비스'는 대중교통 서비스 점검 모니터단이 시내버스와 택시를 이용한 후 불편사항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모바일 밴드 '빛고을 빵빵서비스'에 올리면 해당 부서 공무원이 실시간 확인해 처리한 후 결과를 모니터단 공유하게 된다.

시는 지난달 공모를 거쳐 올해 활동할 시내버스·택시 서비스점검 모니터단 200여명을 선정했으며, 올해부터는 기존 모니터링 해온 친절도·안전운행·운전행태 등 3개 부문을 포함해 버스승강장, 운행안내 시스템 등 운송 서비스와 관련된 전반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 '마을 사랑방' 작은도서관 집중 육성

올 10억 지원 등 육성책 마련

특화·거점형 등 우선 선발

광주시 북구 두암2동 주민센터에 자리한 '새싹들의 글방 작은도서관'.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가 작은도서관을 집중 육성한다.

시는 작은도서관을 마을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생활문화공간이자, 독서사랑방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육성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등록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도서 및 기자재 구입비,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을 위해 사업비 총 1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별 작은도서관 수를 고려해 사업비를 배분하고 자치구에서는 지원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선정위원회 구성, 사업계획서 심사, 현지실사 등 자치구 실정에 맞는 지원 기준을 마련해 공모를 통해 차등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작은도서관의 자립 운영을 위해 마을공동체가 참여하는 작은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형 작은도서관, 특화된 우수작은도서관을 우선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206개관에 총 10억을 지원, 작은도서관이 주민 소통의 장이자 마을공동체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송양석 담당관, 수돗물 부유물질 제거기 특허

광주시 수질연구소의 송양석 담당관(사진)이 무단수 스컴제거기로 특허를 받았다.

송양석 담당관은 용연정수사업소에 소 정수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스컴이 수돗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스컴(Scum)은 물처리시 수면 위에 생기는 부유물질을 말한다.

송 담당관은 연구 끝에 베르누이 원리를 이용해 수돗물을 생산하는 과정에 자동으로 여과지 수로의 스컴을 제거할 수 있는 무단수 스컴제거기를 완성,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10년에도 용연정수사업소 응집제 투입방법을 연구해 인제터를 이용한 응집제를 투입, 광주의 수돗물 수질을 0.07NTU에서 0.035NTU 이하로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로 인해 그해 환경부에서 주관한 '깨끗한 수돗물 생산 기술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으며, 이 또한 '인젝터를 이용한 응집제 투입기'로 특허를 취득했다.

송 담당관은 정수처리 최고 전문가로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위원과 기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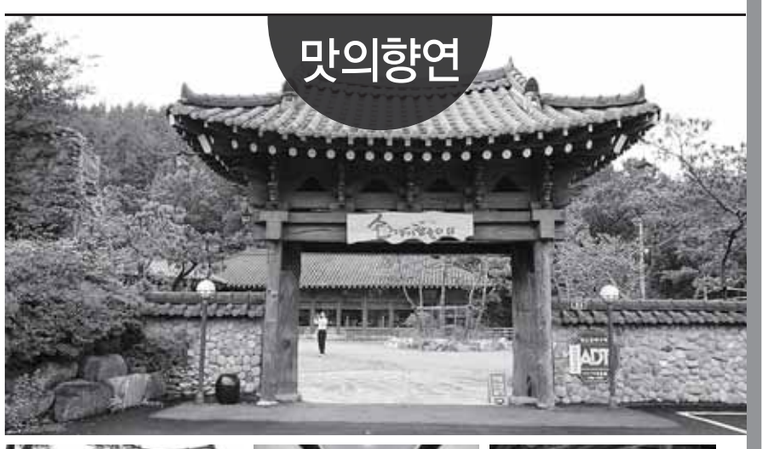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북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외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북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곤(북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A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